



송은지

-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과 4년 재학
- 2018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연소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8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에 합격한 송은지입니다. 합격 수기를 쓰게 된 계기는, 저 또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수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에 그 점에 보답하여 추후 수험생분들께 꼭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수기가 수험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I. 수험생의 마음가짐

본격적인 공부방법 소개에 앞서, 제가 외교관을 꿈꾸게 된 계기와 수험생활동안 가졌던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 잠시 미국에서 생활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그로부터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년기의 해외 생활 경험을 통해 저는 우리 나라를 알리는 외교관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살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에 진학했고, 국제정치에 관련된 여러 강의를 수강하며 수험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학교 동아리의 일원으로 뉴욕모의유엔대회(NMUN)에 참가했는데, 총회 제2위원회에서 인권에 관한 의제로 결의안을 작성했습니다. 다른 대표단들과 타협하며 결의안을 작성해 나갈 때 보람과 기쁨을 느꼈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의 단면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일주일은 외교관으로써 가져야 할 덕목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고 제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험생활동안 외교관을 꿈꾸게 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나태주 시인의 '기도(1984)'를 독서실 책상에 붙여 두고 매일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를 꿈꾸며 1년을 보냈습니다. 또한, 외교관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타인의 시선이나 직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제가 가지는 신념에 의한 것임을 잊지 않으려 매일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림동에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III. 수험생의 공부방법

1. 제1차 시험 (PSAT)

(1) 기출을 통해 문제를 유형화 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기

저는 수험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 기출의 방향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원 모의고사도 활용했지만 PSAT 2010~2017년 역대 기출을 두 번씩 풀었습니다. 저는 각 과목마다 문제를 유형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논리의 경우, '논리학 퀴즈', '사실파악', '암시 찾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해석의 경우 '계산문제', '그래프 문제', '표 비교문제' 등으로, 상황판단의 경우 '법조문 적용', '추리 문제풀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한 분야의 문제를 먼저 풀어 시간 안배에 실패하지 않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2)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저는 속독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40문제를 푸는 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속독과정에서 지문 내용을 잘못 파악할 때가 많았고 특히 계산에 약했습니다. 저는 자료해석이 약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 강점인 언어논리에서 고득점을 전략화 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천천히 두 세 번씩 읽고 또 읽어 틀리는 유형들을 고쳐 나갔습니다. 상황판단의 경우 법조문 문제를 항상 아쉽게 실수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작은 글씨나 숫자를 잘 보는 연습을 여러 번 했습니다.

(3) 당일 컨디션을 위한 몸과 마음 관리하기

PSAT성적을 좌우하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체력과 멘탈리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시험 전 주말은 집에서 휴식하고, 하루 전에는 헌법과 기출의 틀린 문제들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2. 제2차 시험: 국제정치학

*학교 선행 과목: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Modern Chinese history', 'Changes in Asian intl order and China's policy', 'Politics and business in Korea', 'Rule of law in the global context', 'North Korean media studies', 'Conflict in the middle east', '국제기구와 국제관계', 'Politics in Northeast Asia'

*읽은 서적: ‘왈츠 이후’, ‘20세기의 유산 21세기의 진로’, ‘국제정세의 이해’, ‘외교 상상력’,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국제분쟁의 이해’, ‘변환의 세계정치’

(1) 중요개념을 완전히 익히기

중범위 이론의 경우, 저는 신희섭 선생님의 개념퀴즈와 최고답안들을 복습할 때 읽으며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및 기타로 나뉜 각 패러다임별 이론을 정리해 하나의 표로 만들었습니다. 총 70개 낱질의 이론들을 학자 이름과 그 간략한 내용과 함께 적어둔 파일은 1순환 직후 완성하여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활용했습니다. 외교사의 경우, 논거를 전개할 때 가정적인 상황보다는 기존 사례들을 활용할 경우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이상구 선생님의 ‘국제정치학논강2’으로 외교사를 공부했는데, 해당 서적에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들을 덧붙여 단권화를 했습니다. 국제정치경제의 경우, ‘20세기의 유산 21세기의 진로’를 요약한 파일을 시험장에서도 활용했는데, 경제학 개념에 정치학적 서술이 연결되는 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제정치경제는 최근 출제빈도가 높아 반드시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책과 학교 강의를 활용해 차별화된 답안 구상하기

2017년 10월 초, 저는 학교에서 제공된 ‘국제정치학 특강’을 수강하며 ‘왈츠 이후’의 저자 이근욱 교수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특강에 초청된 교수님들께서 일관되게 강조하시던 것은 ‘전문가들과 교수

들의 의견이 직접 드러난 서적들을 많이 읽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외교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현재와 미래의 국가 간 역학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며, 그들이 논리를 구성하는 표현방법을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2순환 때는 학원 강의 대신 매일 국제정치학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DBPIA사이트를 활용해 수험과 연관된 중요한 논문들을 선정해 읽고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며 답안지를 구체화 시켰습니다.

(3) 답안지 완성 및 팩트와 시사지식 외우기

매일 답안지를 쓰는 3순환때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돋보이는 답안을 쓸지 고민하였습니다. 시험이 임박한 5~6월 동안은 매일 인터넷과 TV뉴스로 국제정세와 시사이슈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독서실에 무료로 비치된 신문들을 읽으며 큰 도움을 받았는데, 간단한 아침 거리를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중요한 기사들은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대한민국과 4강의 GDP, PPP, SIPRI 통계 등을 적어 외우고 국제기구나 중요한 인물의 이름을 정확히 외우는데 주력했습니다.

3. 제2차 시험: 국제법

*학교 선행 학습: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법총론’, ‘국제법 원서강독’

*읽은 서적: ‘국제법론(김대순 저),’ ‘WTO 법론(김대순, 김민서 저)’

(1) 교과서로 복습하고 조문을 많이 읽기

저는 암기보다는 이해에 기반한 수험공부를 하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백승호 선생님

의 강의 방식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비~1순환 수업에서는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을 1독했습니다.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50%가량 이해하더라도 여러 번 읽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부분은 질문할 것을 생각하며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저서가 훌륭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지만 외교관 준비생의 입장에서 교과서가 해설하는 '1차 자료'들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순환 동안 VCLT, ILC(with commentary), UNCLOS를 2번씩 전체 읽었습니다. 국제법은 결국 '조문'과 '판례'만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2)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법을 배우고 국제경제법을 공부하기

1순환을 마친 저는 2순환 때에는 '묻는 것을 답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치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공부하면서 출제자가 본질적으로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2순환 때는 일반국제법의 경우 1순환 공부와 동일한 방법으로 교과서와 조문으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김대순 교수님 책을 점점 읽으면서 제가 동의하는 부분과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점점 국제법이 무엇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사고과정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순환은 제가 '국제경제법'을 제대로 공부한 첫 시기였습니다. 답을 써보면서 GATT와 여러 부속 협약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게 되었고 국제경제법은 더 철저히 조문 위주라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국제경제법은 3년 연속 출제되지 않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대비가 필요하고, 본인이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경제법 조문들은 기계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딱딱한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원리만 이해한다면 오히려 더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단원별, 주제별로 자신만의 마인드맵 만들어 두기, 문장과 판례 담아두기

PSAT시험 이후 학원 국제법 답안특강이 3~4월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두 과목과 병행하며 국제법 감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순환 때는 기출문제를 많이 읽어보면서 '장과 조문으로 읽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순 교수님의 '칼날 같은 문장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노력했는데, 여러 번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은 덕분에 억지로 외우지 않더라도 몇 개의 문장들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3순환 때는 일반국제법과 경제법 모두 판례를 정확하게 잘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판례를 외울 수는 없지만 단원별로 대표적인 것 2~3개는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법의 경우에는 3순환 때 답안지를 많이 쓰기도 하는, 기존의 1~2순환을 거치며 제가 작성한 "모범 답안"들을 반복해서 읽고 중요 개념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4. 제2차 시험: 경제학

*학교 선행 학습: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미시경제학'

(1) 매일 복습하고 최고답안 모방하기

처음 김진욱 선생님의 경제학 1순환 실강을 들어갔을 때, 많은 수의 학생들에 압도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사실 저는 1순환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빠짐없이 열심히 했지만 경제학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답안을 작성해 보려고 했지만 어려웠기에 좌절했던 기억이 나고, 최고 답안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수험생 분들께서는 1순환 때 바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원 강의를 제 이해수준보다 빠르다고 느꼈지만, 최고답안을 꾸준히 필사하며 천천히 제 속도대로 공부했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을 생각하며 최답을 따라 썼습니다. 그 결과 답안지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 표현, 정의 등을 익힐 수 있었고 수업에서 알지 못했던 부분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 이해를 바탕으로 답안지 완성하기

저는 3순환 강의를 통해 비로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했고, 수업보다는 스터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에 익숙해진 장황한 말투를 간결하게 줄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6~7줄에 걸쳐 그리던 그래프를 8~9줄로 확대했고 그래프에 <그림1>과 같은 형식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왼쪽은 그래프, 오른쪽은 그래프 변수의 설명을 적는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함의를 적을 때 다양한 예시를 넣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계산 실수에 취약한 편이었지만 계속해서 답안지를 쓰며 개선했습니다. 황종휴, 김진욱 선생님 3순환 모의고사를 한번씩 더 풀고 시험 2주 전에는 하루에 각 강사의 모든 모의고사를 꼭 훑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

점을 두었던 것은 기출입니다. 2010년 이후의 외교원 기출을 가장 많이 보았지만 행정고시 시험도 체크했습니다. 저는 2018년부터 시험 시간이 120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도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2013년 이전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었을때의 비교적 높은 난이도 기출을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학 공부를 통해 느낀 것은, 뭐든지 안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경제를 공부함에 있어서 스터디가 정말 잘 맞았다고 느꼈는데 이를 늦게 알게 되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공부방법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서 보람찬 수험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제2차 시험: 학제통합논술 I, II

통논은 총점의 40%나 차지하는 과목이지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다소 과소평가된 과목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통논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도 4월 초부터 였는데, 아무런 자료나 해설이 주어지지 않았고 학원 강의도 없었기에 막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추후 언급하겠지만 저는 통합논술은 스터디를 통해 답안지를 써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과정은, 가장 먼저 역대 기출을 모두 인쇄해 어느 주제가 출제되었는지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합논술은 25~30점 수준으로 각 과목의 전문 지식을 모두 물어보기 때문에 세 과목이 overlap하는 주제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자주 출제된 것 (조약의 법적 성격이나 공공재 그래프 그리기는 2번 이상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을 제외하고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꼽아보았습니다. 특히 텡궁 낙하, 미세먼지, 판문점 선언, 위안부 합의문, 남

북통일 등이 현안으로 꼽히고 있었기에 10가지 정도의 가능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법의 어느 이론과 분야가 나올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 10페이지 정도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리스트가 실전 문제를 완전히 적중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논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합논술은 하나의 대주제 안에 세 가지의 세부적 분야를 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과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는 시각을 꾸준히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외부효과 이론은 환경법 이론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그러합니다. 통합논술 대비에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하나의 큰 퍼즐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저는 공부했습니다.

6. 제3차 면접

저는 신림동에 있을 때는 3차 대비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진행과정과 구성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2차 합격 소식 이후 합격생들이 모두 모여 3차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단토론의 경우 영어발표능력이 요구되는데, 저는 학부 내내 영어사용에 익숙해져 있어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2차 결과 발표 이후 저는 학교 동문분들과 함께 이대 스터디센터에서 코칭을 받아 표현을 다듬고 시사 주제에 익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인성면접을 위해서는 본인이 공부를 하게 된 동기, 원동력, 순간순간 느꼈던 감정들을 잘 정리해 두셔서 말씀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면접은 공무원으로서 행동해야 할 결정과 태도를 물어보기 때문에 실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면접관 분들

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수용해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IV. 수험생의 생활

1. 스터디의 활용

저는 ‘공부는 혼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처음에는 스터디 결성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시공부의 특성상 혼자서만 답안지를 작성하고 점검한다면 스스로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잘못된 것을 답습할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아침 출석스터디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다(2017.12~2018.06)

신림 생활의 강점은 직접 출석스터디에 참여해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부습관이 제대로 잡힌 2순환 후반부터 생활습관을 고치기 위해 아침 7:50분의 출석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겨울에 스터디를 시작한 것은, 2순환이 끝나고 홀로 PSAT공부를 할 때 늦잠을 자거나 쉬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3분거리였지만 잠이 많은 제게 출석 스터디는 아침 공부시간을 1시간 정도 당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2) 3순환 때 과목별 스터디로 실력을 끌어올리다 (2018.03~2018.06)

경제학의 경우, 기존 한림 수강생들끼리 짜여진 조에 제가 아는 언니와 선배 소개를 통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중순부터 시험 일주일 전까지, 주 4회 (매주 350점 정도) 2010년도 이후 기출문제를 풀고 서로 돌려보면서 첨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베리

타스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스터디원들과 다른 교재와 해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풍부한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스터디를 통해 실제로 답안지를 구성하는 법을 이해했고, 그래프 모양과 크기, 글씨와 문체 등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경우, 경제학 스터디원들 세 분과 함께 2018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일주일 3회 매번 100점 만점을 풀어보고 서로 돌려 침삭해 주었는데 3주 조금 넘게 하고 끝났습니다. 다른 분들의 답안 구성방식과 서술 흐름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국제법의 경우, 저와 실장을 함께 들은 스터디원들 세 분과 함께 2018년 국제경제학 3순환 기간 동안 짧게 답안 작성을 연습했습니다. 세명다 백승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3순환 실장에서 제공된 1~3순환 문제 중 중요한 것들을 매일(월~토) 두세 문제씩, 2주간 풀었습니다. 국제법의 경우 시간안에 조문을 보지 않고 빠르게 기억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시험을 보기 전 마지막에 짧고 굵게 스터디를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합논술의 경우, 기존 경제학 스터디원들과 3개년차를 실천처럼 작성하여 돌려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와 최종합격하신 스터디원과 돌이키는 나머지 년도의 통합논술을 모두 풀어보며 공부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답안지에 일관되게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점을 상대방이 적은 것을 보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2. 수험생의 인간관계

신림동에 들어가기 전,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시생은 친구와 차츰 연락을 끊어야 한다,” “고시하면 놀 시간이 없다.”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었고,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이기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 시간을 조율하고 만남 횟수를 점점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카톡은 점점 사용하는 빈도를 줄였는데, 점심 혹은 저녁 시간, 그리고 자기전에 한번씩만 확인해서 제 시간을 뺏이지는 않았습니다. 외부 친구들과의 만남은 줄여갔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저는 고시촌의 좋은 인연들과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1순환 때는 수험을 준비하던 고등학교 동기들과 종종 식사를 했고, 학원 수업에서도 친해진 사람들과 유쾌하게 보냈습니다. 국제법 수업 조교님과 한 팀이 되어 답안특강을 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학업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3. 수험생의 스트레스 해소

고시생 신분으로써 제가 끊기 어려웠던 것은 유튜브, 웹툰, 영화, 쇼핑 등 시간과 관심이 소요되는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재미있는 영상을 틀어두는 것이 적막한 식사시간의 즐거움이었지만, 3순환 때는 이를 활용해 ‘국방TV’의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대신 시청해서 오히려 전쟁사와 외교사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노트북으로 영화 한편 정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D-13, American Made, Dunkirk, 라이언 일병 구하기 등의 영화는 외교사와 국제정치 공부의 흥미를 환기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여가는 좋지만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디어의 활용빈도가 높았기에 그것을 잘 이용한 여가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는 성격과 습관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제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공부도 최대한 집중할 수 있었기에 “실때는 제대로 쉬고, 할때는 제대로 한다.”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절대적 시간은 제한해 두었고 (어플 ‘넌 얼마나 쓰니’) 그 시간을 넘겼을 경우 하루 종일 더 이상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순공시간은 어플 ‘공시기’로 확인했습니다.

V. 나가며

이렇게 수기를 쓰게 되어 정말 벅차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기를 마치며 감사한 분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주시고 선택의 연속을 통해 현재의 저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따뜻하게 저를 도와주신 부모님과 가족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고 배려해준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과 미국에서의 인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공부를 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 수기가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립외교원에서 낮은 자세로 생활하며 열심히 배워 나가는 외교관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